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호 THE UNITED /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발행소 더스포츠키퍼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휴렛팩커드빌딩 20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하나원큐 K LEAGUE 1



OFFICIAL MAGAZINE
2022.12.30 / 제10호

UTD REPORTER NEWS

새로운 역사를 쓴 파검의 전사들

BLUEMAN INTERVIEW I

'인천에서의 3년' 김준엽,
"이제는 인천이 고향팀 같다"

UTD REPORTER NEWS

ASIA로 향하는 인천,
잊지 못할 순간들을 돌아보며

BLUEMAN INTERVIEW II

조성한 감독 "팬들 덕분에 이뤄낸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내년에는
빠른 공수전환으로 더 많은 즐거움 드리겠다"

THE UNITED





새로운 역사를 쓴 파검의 전사들

글 = 주대은 UTD기자 (ju_dann@naver.com)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2022시즌을 앞둔 인천의 목표였다. 모두가 '어렵다' 이야기했지만, 인천은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갔다. 시즌 도중 선수의 부상, 이적, 부진 등 여러 악재도 인천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인천은 AFC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얻으며 역사를 새롭게 작성했다.

인천이 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타 시즌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선수단의 활약이었다. 파검 유니폼을 입은 최고의 선수단이 있었기에 인천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UTD기자들이 각 포지션 별 주요 선수들을 중심으로 2022시즌 선수단을 돌아봤다.



GK, 인천의 골문을 지킨 대건고 출신 골키퍼 4인방

인천은 2021시즌 리그 38경기에서 45골을 내줬지만 2022시즌엔 42골을 허용하며 실점을 줄였다. 줄어든 실점에는 골키퍼들의 활약이 주요했다. 이태희-김동현-민성준-김유성으로 이어지는 대건고 출신 선후배 골키퍼들은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며 골문을 지켰다.

특히 김동현이 두드러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즌 동안 김동현에게 날아온 유효슈팅은 총 107개였고, 기대실점은 29.35골이었다. 하지만 김동현은 22골만을 내주며 기대실점보다 적게 실점했다. 선방지수(기대실점에서 실제실점을 뺀 값)는 7.35를 기록했고, 이것은 K리그 1 최고 기록이었다. 김동현은 25경기에 나서 0점대 실점율(0.88)과 함께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이태희도 힘을 보탤었다. 이태희는 시즌 직전 동계 훈련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며 약 4달의 회복 기간을 가졌다. 긴 시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클래스는 여전했다. 그는 올 시즌 리그 첫 출전이었던 12라운드 울산 원정 경기에서 후반 막판 레오나르도의 결정적인 헤더를 막아내는 등 선방 능력을 자랑했다. 그는 리그 12경기에 출전하며 인천의 골문을 지켰다.



CB, 최근 6시즌 동안 가장 적게 실점한 중앙 수비수들

2022시즌을 앞두고 인천 수비진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불안함'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베테랑 수비수들이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시즌 초반 출전이 불투명했다. 걱정과 다르게 인천은 시즌 개막전 무실점을 포함해 시즌 초반 5경기에서 단 2골만을 허용했다. 이후 주축 수비수들의 경고로 인한 출전 징계, 부상 등으로 수비진에 다시 공백이 생겼지만 경기에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복귀하며 자리를 채웠다.

중심에는 김동민이 있었다. 김동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중앙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포지션 변경은 선수와 팀 모두에게 신의 한 수였다. 김동민은 적극적인 수비와 과감한 공격 가담으로 인천의 후방을 책임졌다. 김동민은 인천에서 경기력을 바탕으로 K리그 베스트 11 후보로 선정됐다.

델브리지도 스리백의 한 축을 담당했다. 델브리지는 이번 시즌 리그 33경기에 나서며 수비력을 과시했다. 게다가 팀에 득점이 필요한 상황일 땐 최전방으로 올라가 높이를 활용해 공격을 도왔다. 31라운드 수원삼성 원정 경기에선 후반 추가 시간 김대중의 추격 골을 어시스트했다. 델브리지는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생애 첫 A매치 데뷔전을 가졌고, K리그 베스트 11 후보에도 올랐다.

베테랑 수비수들은 인천 수비에 안정감을 더했다. 강민수는 시즌 개막전에서 볼의 머리 부상을 당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시즌 25경기에 출전했고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다. 김광석과 오반석은 각각 17경기, 13경기에 출전하며 보탬이 됐다. 수비수들의 활약으로 인천은 38경기에서 42실점을 기록하며 최근 6시즌(코로나19로 인해 시즌이 축소됐던 2020시즌 제외) 중 가장 적게 실점했다.



WB, 공수를 넘나드는 활약 보여준 측면 수비수들

올 시즌 인천의 주 포메이션은 3-4-3이었다. 공격 상황에선 수비수 3명, 수비 상황에선 수비수가 5명이 되는 인천 스리백의 특성상 측면 수비수의 역할이 중요했다. 인천 측면 수비수들은 공수를 넘나들며 측면을 사수했다.

김준엽은 이번 시즌 인천의 오른쪽 측면을 책임졌다. 시즌 도중 부상으로 인해 약 2달간 결장했지만, 복귀 이후 왕성한 활동량을 내세워 출전했다. 그는 측면에서 수비는 물론이고 공격적으로도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2라운드 강원 원정 경기 결승 골과 순연 23라운드 인경전 홈 경기 어시스트를 포함해 25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왼쪽 수비엔 강윤구와 이주용이 있었다. 강윤구는 시즌 초반 출전하지 못했지만, 첫 출전이었던 17라운드 강원과 홈 경기에서 무고사의 득점을 어시스트했고, 18라운드 인천전 원정에서 이명주의 헤더 동점 골을 도왔다. 이주용은 컨디션 난조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출전할 때마다 국가대표 출신 다운 오버래핑을 보였다.

이번 시즌 인천 중원을 이야기할 때 여름과 이강현을 빼놓을 수 없다. 여름은 시즌 초반부터 이명주와 합을 맞춰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13라운드 대구와 홈경기에서 장기 부상을 당하며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못했지만 넓은 활동량과 정확한 킥을 바탕으로 14경기에 출전했다. 이강현은 시즌 초엔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며 수비력을 입증했다. 이후 자신의 주 포지션인 미드필더로 돌아왔다. 30라운드 제주 원정 31라운드 수원삼성 원정 경기에서 2경기 연속 중거리골을 뽑아내며 활약했다.

김도혁은 새로운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 원래 미드필더에서 뛰던 김도혁은 이번 시즌엔 측면 공격수로 기용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원래 장점인 활동량에 번뜩이는 공격력으로 측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득점이 많진 않았지만 27라운드 대구 원정서 극적인 역전 골, 순연 23라운드 인천전 홈 경기 빼기 골을 포함해 34경기 2골 3도움을 기록했다.



MF, 인천을 아시아로 이끈 역대급 미드필더 조합

인천은 최근 수년간 선수들의 부상, 이적, 군 입대 등 여러 이유로 미드필더를 여유롭게 구성하지 못했다.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했던 만큼, 이번 시즌을 앞두고 3명의 미드필더를 영입했다. 인천은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이명주, K리그에서 쏠쏠한 여름과 이동수를 영입하며 중원을 강화했다. 기존에 있던 아길라르, 이강현 등도 어우러지며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진을 구성했다.

인천의 중원을 이끈 건 이명주였다. 2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이명주는 적응 기간도 없이 인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명주는 2라운드 강원과 원정 경기부터 어시스트를 하더니, 결국 팀 내 최다 출전(34경기)과 최다 도움(5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K리그 베스트 11 후보에 든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아길라르와 이동수도 중원에 힘을 실었다. 아길라르는 주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측면 공격수부터 최전방 공격수까지 소화하며 전술 소화 능력을 자랑했다. 이동수는 선발 출전과 교체 출전을 오가며 미드필더진에 체력과 안정감을 보였다. 이동수는 36라운드 제주와 홈 경기에서 인천 데뷔골을 신고했다.



WF, 필요할 때마다 득점해준 측면 공격수들

2022시즌 초반 인천은 최전방 공격수 무고사에게 득점이 쏠렸다. 무고사가 상대에게 득점을 퍼부으며 기록상 팀 득점에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측면 공격수들이 득점하지 못하며 이들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다. 무고사가 리그 비셀고베로 이적하며 우려는 커졌다. 하지만 격정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측면 공격수들이 살아났다.

인천의 공격 선봉장 역할을 한 건 '원더보이' 김보섭이었다. 김보섭은 시즌 초반엔 측면 수비수로 경기를 소화했지만, 16라운드 제주전부터 제자리로 돌아왔다. 김보섭은 장기인 스피드를 활용해 시즌 팀 내 최다 드리블(28회)을 기록했다.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인 김보섭은 리그 34경기 5골 4도움으로 팀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만들었다.

측면 공격수들의 무득점을 끊어낸 것은 송시우였다. 송시우는 15라운드, 성남과 홈 경기에서 결승 골을 넣으며 팀에 승점 3점을 선물했다. 자신감을 되찾은 송시우는 28라운드 전북전, 순연 24라운드 포항전 등 필요한 순간,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주로 조커로 출전한 송시우는 29경기에 나서 4골을 기록했다.



ST, 시즌 도합 20골 뽑아낸 최전방 공격수들

인천에게 최전방 공격수는 가장 걱정이 없는 포지션이었다. 실제로도 그랬다. 2022시즌 인천의 최전방에 섰던 무고사는 17경기에서 14골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난 6월 무고사가 시즌 도중 이적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다. 주 득점원의 이적 이후 인천은 2경기 동안 득점하지 못하고, 고민은 커졌다.

어려운 상황 속 등장한 해결사는 경남에서 인천으로 적을 바꾼 에르난데스였다. 에르난데스는 8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최전방의 공백을 메웠다. 득점 뿐만 아니라 4개의 도움을 올리며 마무리와 어시스트 둘 다 가능한 특급 공격수임을 알렸다. 순연 23라운드 인천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며 일찌감치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인천을 이끌어갈 새로운 공격수로 기대감을 모았다.

김대중과 이용재도 최전방에서 분투했다. 김대중은 대부분 득점이 필요한 순간에 투입됐다. 특유의 높이로 상대를 위협했고 성과도 냈다. 김대중은 31라운드 수원삼성 원정 경기에 교체로 들어가 후반 추가 시간 추격 골을 넣으며 동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용재는 많은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혔다. 이용재는 시즌 개막전에서 결승 골을 어시스트하며 인천이 12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거두는 데 크게 공헌했다.



U22, 나이단지 않은 활약 보여준 U22선수들

이번 시즌 인천 선수단의 장점 중 하나는 만 22세 이하 국내 선수(U22 선수)들이었다. K리그 규정상 출전선수명단에 U22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고, 그중 1명은 의무선발출전을 해야 한다. K리그의 많은 팀들이 U22선수 구성에 고민이 많았지만, 인천은 달랐다. 인천의 U22 선수들은 어린 나이단지 않은 경기력을 유지하며 큰 도움이 됐다.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선 건 측면 수비수 민경현이다. 데뷔 시즌이었지만 당당히 실력을 증명한 민경현은 30경기에 나서며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뚝 뚝 민경현은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25라운드 성남 원정 경기에선 K리그 데뷔골을 성공시켰다.

홍시후는 28경기에 나섰다. 그는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골 결정력이 떨어지며 부침을 겪었다. 결국 36라운드 제주와 홈 경기에서 시즌 첫 어시스트와 마수결이 득점까지 성공하며 마음의 짐을 덜었다.

K리그 2년차 김민석은 특급 조커로 활약했다. 리그에서 단 5경기에 나섰으나 3골 1도움을 올렸다. 김민석은 K리그 데뷔골이자 시즌 첫 골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록했다. 31라운드 수원삼성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골을 넣었고, 인천은 이 득점으로 인해 9년 만에 파이널A로 진출했다.

김성민과 박창환은 교체 카드로 활용됐다. 빠른 스피드가 주특기인 김성민은 21라운드 전북 원정에서 동점 골이자 K리그 데뷔골을 넣었다. 박창환은 10경기에 나서며 팀에 도움이 됐다. 팀의 막내인 박현빈은 21라운드 전북 원정에서 K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인천에서의 3년' 김준엽, "이제는 인천이 고향팀 같다"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올 시즌 인천은 대단했다.

시즌 초반에는 짧게 끝날 돌풍 같았지만 결국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확정을 지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강등권에서 생존 경쟁을 펼치던 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인천의 놀라웠던 2022시즌을 이끈 많은 선수 중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는 적었지만 빼놓을 수 없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있다.

김준엽이 그 주인공이다. 사이드백부터 중앙수비까지, 인천을 위해 헌신했던 김준엽을 UTD기자단에서 만났다.



13년 차의 베테랑이 처음 느낀 안정감

2020시즌부터 인천에 합류한 김준엽은 올해 인천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세 번째 시즌이라는 말이 유독 김준엽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 2010년 제주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어느덧 13년 차의 베테랑이 되었지만, 3년 이상 머무른 팀은 신인 시절 제주 이후 인천이 처음이다. 특히 올 시즌 김준엽은 25경기를 소화하며 인천 소속 58경기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김준엽이 한 소속팀에서 기록한 최다 출전 기록이다.

김준엽은 "인천에 오기 전까지는 '저니맨' 생활을 했다. 보통은 첫 선수 생활을 시작한 팀을 고향팀이라고 하는데, 나는 제주에 있을 때 경기도 많이 못 뛰었고 그 뒤에도 이적을 많이 한 탓에 그런 감각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인천에 온 뒤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경기를 꾸준히 나가다 보니 인천이 고향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원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경기를 뛰면서 점점 적응하고, 인천 사람들도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 최근에 선수 생활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겼는데, 인천이 고향팀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 인천에서 더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이적이 잦았던 김준엽은 프로 생활을 하는 13년의 세월 동안 군 복무 포함 7개의 팀을 거쳤다. 그는 "타이밍도 좋지 않았고, 내 실력도 문제였다. 모든 게 맞지 않아서 그동안 팀을 많이 옮겼다"며, "인천에 와서는 조성환 감독님이 오시고 좋은 코치진이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다. 팀적으로도 많이 안정됐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자체가 많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인천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김준엽이지만 인천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2020시즌은 코로나로 인한 개막 연기부터 부상까지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김준엽은 "이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적한 첫 시즌에는 원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빨리 도태된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개막전에 맞춰 몸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개막이 미뤄지면서 아쉬움이 많았다. 시즌 초반 너무 이른 시기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재활을 서둘렀는데 생각보다 잘 안됐다. 바깥에서 팀을 지켜보는데 팀도 15경기 무승을 하고 전체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성환 감독님이 오셨고 나도 복귀를 하게 됐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감독님과 팀의 공화이나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다. 전반기는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다.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시즌이었다"고 추억했다.

인천은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었던 때를 거쳐 AFC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팀이 됐다. 김준엽은 이 과정을 내부에서 전부 지켜본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감독님이 오시면서 규율이 잡힌 게 가장 컸던 것 같다. 좋은 선수도 영입하고 구단 직원분들을 비롯한 팀의 구성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줬다. 그 준비에 맞게끔 선수들도 열심히 해줬던 게 결정적이었다. 특정 선수가 잘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까워서 지켜본 바로는 모두가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그런 진정성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달라진 인천 속 김준엽의 성장과 부상

2021시즌 인천은 조기 잔류를 확정 지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분명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 명의 선수로서 김준엽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팀적으로 워낙 잡혀가는 단계라 이제 도태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동계 훈련 때는 내가 자리에서 1번이 아니었고, 이름값이라는 게 없는 선수다 보니 더 걱정이 많았다. 사실 이런 생각은 매년 했지만 올해는 특히 걱정이 많았다. 솔직히 동계 훈련 때 '이제는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축구가 너무 좋았고, 너무 잘하고 싶었다.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아직 못 버리겠더라. 체력적으로 준비하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다. 비디오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면서 내가 뭘 해야 여기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공부도 했다. 선수는 어쨌든 경기장에 들어서면 보여줘야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력을 하려고 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경기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김준엽은 시작 전 유독 걱정이 많았던 시즌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최고의 시즌이 됐다. 인천 소속으로도 한 시즌 최다인 25경기를 뛰었고, 인천 소속 첫 골도 기록했다. 3라운드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나온 이 득점은 K리그1 데뷔골이기도 했다. 김준엽은 "K리그1 데뷔골인 것이 정말 의미가 컸다. 13년을 프로 생활을 했는데, 13년 동안 그리던 골과 세리머니를 35살에야 했다. 경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돌아보니 13년이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준엽은 "득점 후에 좋아서 달려가는 세리머니를 대학 때부터 많이 했다. '프로 가서도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K리그2에서는 많이 했지만 K리그1에서는 처음 해봤다. K리그1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으니까 1부리그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만큼 득점에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득점과 어시스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욕심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많이 내려놓은 모습이었다. 김준엽은 "공격 포인트를 쌓으면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으니까 욕심이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많이 내려놨다. 어느 순간부터 경기력을 좀 더 올려서 팀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공격 포인트는 경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다른 면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인 김준엽이지만 시즌 초에는 부상도 있었다. 4월 초 대구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김준엽은 6월 중순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야 복귀할 수 있었다. 두 달이 넘는 시간이었다. 김준엽은 "대구와의 경기 때 상대와 경합하다가 외측 인대가 파열됐다. 오래 걸린다고 했지만 생각보다는 빠르게 복귀했다. 빨리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가 컸다. 감독님과 코치진이 (이)명주, 아길라르, 나까지 셋이서 오른쪽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점점 맞춰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동계 때는 위기감도 들었던 만큼 다시 믿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정말 빨리 복귀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준엽은 지난 시즌 9월에도 우측 안와 하부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



다. 수술까지 이어졌고 이후 한 경기밖에 나서지 못했던 만큼 1년도 지나지 않아 찾아온 올 시즌의 부상이 심적으로 타격이 클 법도 했다. 하지만 김준엽은 이 역시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축구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이 뚜렷하게 자리가 잡혔다. 특점했던 강원전 때도 느꼈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부상이 찾아왔을 때는 낙담했지만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어쨌든 복귀해서 다시 보여주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중앙수비로의 변신

올 시즌 김준엽에게 가장 놀랐던 면 중 하나는 중앙수비 포지션을 소화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스토퍼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경기를 소화했다. 올 시즌 개막전 킥오프 후 15분도 되지 않아서 강민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며 같은 자리를 소화한 것이 시작이었다. 김준엽은 시즌 말에도 중앙수비를 소화하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시즌 시작 전부터 계획에 있었는지 묻자 그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준엽은 "개막 당시에 코로나와 부상이 겹치면서 중앙수비 자원이 많지 않았다. 당시 들어갈 때 (이)강현이와 나를 두고 코치진들이 급하게 고민한 끝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 솔직히 거의 본 적 없는 자리라서 불안하기는 했지만 정신 차리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상대가 퇴장을 당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할 만했던 것 같다. 개막전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더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그 뒤로도 코치진께서 믿어주시니까 계속 소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를 치르면서 이 자리는 이렇게 본다는 걸 많이 배운 것 같다. 더 잘하고 싶어서 분석관한테 영상도 받아서 공부도 많이 했고 연구했던 덕분에 별 탈 없이 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시즌 전 계획에도 없었던 포지션을 보게 된 것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김준엽은 덤덤했다. 그는 "지금 코치님들께서 나를 알고, 나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믿으려고 했다. 코치진은 나를 믿어주고, 나는 코치진들을 믿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해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뛰었다"고 밝혔다.

중앙수비와 주 포지션인 측면 수비수와의 차이점도 물었다. 김준엽은 "윙백은 공격과 수비를 다 해야 하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다. 전체적인 경기력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중앙수비는 체력적으로는 덜 힘들지만, 실점 위기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멘탈적으로 더 힘든 게 있다. 그래도 많이 소화한 윙백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올 시즌 인천이 지속해서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수비에 있었다. 베테랑들의 활약과 함께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덕에 38경기에서 총 42실점, 경기당 1.1실점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다. 특정한 인천 수비의 구성원으로서 김준엽에게 비결을 물었다. 그는 "교과서 같은 대답일 수 있지만 팀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선수가 많기도 했지만 누가 들어가도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건 그 이유인 것 같다. 1년 동안 체제 안에서 준비했던 것이 올해에 다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좋은 팀을 만들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 시즌은 김준엽 역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즌이었다. 하지만 김준엽은 "내가 잘했던 시즌인 줄 몰랐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본인의 2022시즌 활약을 점수로 표현해달라고 하자 "7~80점"이라고 밝힌 그는 올 시즌은 본인의 활약보다 더 얻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김준엽은 "잘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즌 후 회식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해줬다. '그래도 내가 올해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경기력보다 더 큰 걸 얻었다. 축구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시즌이 끝난 후 운동을 하는 이유가 축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다. 경기를 뛰지 않을 때도 많은 걸 공부하면서 '이건 운동장에 들어가서 한 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많이 가졌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 느꼈던 감점들인데 올해, 이 나이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다. '이걸 해봐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이걸 안 되네. 그럼 이거 해봐야지' 이러면서 실행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축구의 원초적인 즐거움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생각을 잘 안 하기도 했다. 축구를 즐기기에 바쁘다. 또 경기를 뛰고 싶고, 경기에서 하고 싶은 게 늘어나는 이런 감정을 지금에서야 느끼는 게 정말 신기했다"고 밝혔다.

시즌이 끝난 후 재밌는 일화도 있었다. 이명주가 K리그 시상식에서 밝힌 내용이 크게 화제가 됐다. 리그 최종전이었던 전북현대와의 경기 중 김준엽이 바로우에게 "바로우 웨이크업! FA컵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 이에 대해 자세히 묻자 김준엽은 곧바로 "이거 때문에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 (이)명주에게 왜 말했냐고 한소리 했다"며 웃었다. 그는 "대구FC에 있던 시절에 느꼈던 것이,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라는 점이다. 국가대표가 되지 않는 이상 국제 대회를 치를 경험이 없으니까, 선수에게도 팬들에게도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된다. 그걸 알고 있으니 AFC 챔피언스리그에 정말 나가고 싶었다. 사실 리그 최종전에서 진출 여부가 결정되려면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의 경기 결과도 필요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많이 내려놓고 즐기면서 하려고 했다. 경기 초반에는 우리 쪽 분위기가 더 좋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바로우가 들어왔는데 당황해 있더라. 다가가서 정신 차리라고, FA컵 꼭 이겨야 한다고 말했더니 바로우가 웃었다. 그렇게 넘어간 걸 (이)명주에게 말했는데 재밌다고 생각해서 시상식에서 얘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준엽의 조연(?)이 힘이 되었는지 바로우는 1, 2차전 모두 득점을 하며 전북의 우승을 이끌었다. 덕분에 인천의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이뤄졌다. 김준엽은 "결론적으로는 바로우에게 잘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선수 생활과 그 이후,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어느덧 프로 13년 차. 선수 이후의 미래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정혁의 은퇴식을 눈앞에 보기도 한 만큼 김준엽 역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그는 "사실 은퇴에 대한 것은 항상 생각했다. 13년 동안 항상. 언제 그만둘게 될지 모른다. 올해, 아니면 내일 그만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은 늘 있었다. 그래서 당장 그만둘게 되더라도 크게 슬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매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도 오래 하고 싶다. 지금도 오래 했지만, 더 하고 싶다"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김준엽은 "지금 생각보다 몸이 좋다. 힘이 다하는 데까지, 상황이 괜찮을 때까지는 계속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 (정)혁이 형과 올해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선수 생활이 끝나도 축구계에

서 일하고 싶다.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할수록 축구가 너무 좋다. 올 시즌에 후배들과도 많이 어울렸는데, '이 형 축구 진짜 좋아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지금 이렇게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많은 만큼 일단은 은퇴 후에도 축구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도자에 대해서는 "생각은 있지만 너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서 쉽게 하고 싶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래도 내 경기 영상을 보면서 지도자 입장에서 보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준비를 하는 느낌이다. 3년 전에 B급 자격증까지는 취득했다"며 조심스럽게 밝혔다.

김준엽은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자기 일, 그러니까 축구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 저 선수 정말 열심히 했다. 열정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목표는 많이 사라졌다. 대신 이런 마음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준엽은 "강등 전쟁부터 조기 잔류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인천에 머무른 시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3년 동안 희로애락을 많이 느꼈다. 동시에 팬분들 얼굴을 참 많이 봤다. 좋아하시는 얼굴도, 슬퍼하시는 얼굴도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나도 많은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느꼈던 감정 중 좋은 것들만 다음 시즌에도 함께 느끼고 싶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갖춰진 상황에서 더 최선을 다하고 경기력으로 보여드리면 열정적인 인천 팬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다. 응원해주신다면 선수는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ADIEU 2022! ASIA로 향하는 인천, 잊지 못할 순간들을 돌아보며

글 = 윤희준 UTD기자 (smyoom63@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가 10월 23일 전북현대 원정 경기를 마지막으로 잊지 못할 2022시즌을 마무리했다. 하나원큐 K리그1 2022 최종 4위. 팬, 선수단, 프런트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열정과 감동의 추구를 위해 땀 시즌이었다.

2005시즌 정규리그 우승 및 통합 준우승 이후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2022년. 내년 인천유나이티드의 창단 20주년을 앞두고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낸 인천유나이티드의 1년을 간략하게 돌아봤다.



2022년 2월

4,376일. 인천, 개막전 징크스 털고 12년 만에 승리 달성!

올해 K리그는 카타르 월드컵이 사상 처음 겨울에 개최됨에 따라 이른 시즌 개막을 알렸다. 2월 19일 인천유나이티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2' 1라운드 수원삼성을 상대했다.

인천은 전반 8분 수원삼성 공격수 김건희가 강민수에게 반칙을 저질러 퇴장을 당하자 수석 우위를 살려 90분 동안 경기를 주도하며 득점을 노렸다. 그리고 후반 추가시간 이용재의 크로스를 받은 무고사가 헤더로 결승골을 기록하며 2010년 이후 12년 만에 개막전에서 승점 3점을 획득했다.

“시즌 전 목표로 설정했던 파이널A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첫 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빨리 첫 승리를 거둬야 분위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첫 경기, 많은 팬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 - 조성환 감독



3월~5월, 상승기도 달리는 인천, 먹구름이 드리우다

이후 인천은 2월 1승 1무, 3월 3승 1패를 기록하며 시즌 초반 차곡차곡 승점을 쌓았다. 4월도 마찬가지로. 대구원정에서 무고사의 멀티골로 값진 승점 3점을 획득했고 우승후보 울산과 제주에 무승부를 거두며 AFC 챔

피언스리그 휴식이 전까지 5승 3무 1패를 기록, 2위 자리를 유지했다. 무고사의 날카로운 득점 감각, 단단한 수비진, 그리고 여름-이명주로 구성된 미드필드진은 인천 초반 상승세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휴식기 이후 광주FC와의 첫 경기에서 조성환 감독은 그동안 부상 탓에 출전기회가 부족했던 선수들을 투입해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1-6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다.

줄지 않은 흐름은 5월로 이어졌다. 인천은 4월 10일 9라운드 제주전부터 5월 21일 14라운드 포항전까지 4무 2패를 기록하며 리그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11라운드 전북전을 제외하고 매 경기 2실점을 기록하며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5월의 마지막 경기에서 성남FC와의 15라운드 경기에서 송시우가 결승골을 기록해 약 두 달 만에 홈에서 달콤한 승리를 거뒀다.



6월~7월, 눈물의 이별, 위기 뒤에 찾아온 기회

인천은 무승 기간 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휴식기 후 다시 맞은 6월 첫 경기, 인천은 제주 원정에서 1-2 아쉬운 패배를 기록해 징크스를 이어갔다. 하지만 돌아온 홈에서는 달랐다. 강원을 상대로 무고사가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4-1 대승을 거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승리로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무고사였다.

하지만 곧바로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전을 하루 앞두고 무고사가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무고사 또한 서울전에서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 팬들의 성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전했다. 결국, 30일 인천유나이티드는 무고사의 이적을 발표했다. 그렇게 인천유나이티드의 레전드 공격수 파검의 피니셔 스테판 무고사가 팀을 떠났다.

무고사가 떠난 후 인천은 큰 고민에 빠졌다. 올 시즌 17경기 14골,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던 무고사의 빈자리를 어떻게 대체할지가 문제였다. 실제로 그랬다. 그가 떠난 후 7월 첫 경기 수원삼성전, 수원FC전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천은 7월 8일 K리그2 경남FC에서 활약한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며 위기 탈출에 나섰다.

에르난데스는 9일 곧바로 전북 원정 경기에서 출전 명단에 포함됐다. 그리고 후반전 교체 투입되어 자신의 K리그1 데뷔전이자 인천에서의 첫 경기를 가졌다. 그는 첫 경기부터 빠른 스피드와 유연함, 연계 플레이, 날카로운 슈팅을 기록하며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었다.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다음 김천 원정에서 김보섭의 결승골을 도우며 빠르게 인천에 적응했다.

좋은 분위기에서 7월 마지막 경기, 인천은 성남 원정을 떠났다. 인천은 올 시즌 성남FC와의 경기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다 결국 승리를 거둬 이번에도 기대를 모았지만 고전하며 1-3 패배했다.

“7월 마지막 경기, 성남전은 나와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경기였다. 당시 성남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3골을 실점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해 느낀 것이 많았다. '인천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K리그1에서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준비를 소홀하게 하면 다시 순위가 떨어질 수 있겠다'고 느꼈다. 좋은 교훈이 됐다. 이 경기 후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 - 조성환 감독



8월, '적응 완료' 에르난데스, 공격에 새로운 지표를 열다

인천의 8월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8월 다섯 경기 3승 2무를 기록하며 상위권 싸움을 이어갔다. 상승세의 시작은 27라운드 대구FC 원정이었다. 인천은 대구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는 듯했으나 이명주의 동점골, 에르난데스의 역전골로 경기를 뒤집었고 후반 막판 대구 김진현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김도혁이 역전골을 터뜨리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기세는 계속됐다. 이어 28라운드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인 인천은 전반 초반 송민규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가는 듯했으나 에르난데스의 동점골, 송시우의 역전골, 에르난데스의 페널티킥 추가골까지 터지며 1.618일 만에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라이벌 FC서울도 인천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8월 마지막 경기 23라운드(순연)에서 인천은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에르난데스, 김도혁의 연속골로 2-0 완벽한 승리를 했다.

하지만 인경전 완벽한 승리에도 인천은 웃을 수 없었다. 에르난데스가 경기 중 상대의 태클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초반에는 재활로 강한 복귀 의지를 보였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고 결국 수술을 받으며 시즌 아웃 판정을 받게 되었다. 에르난데스는 8월, 5경기에서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인천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게 되자 조성환 감독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9월, ONE TEAM - 난세 속 등장한 영웅, 그리고 9년 만에 파이널A 확정!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인천은 흔들리지 않았다.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 사이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단단한 원 팀이 됐다. 그렇게 떠난 제주 원정, 4위를 지키기 위해 제주유나이티드와의 중요한 승부처였다. 경기는 제주가 주도했다. 제주는 전반 초반부터 점유율을 가져가며 선제골



10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인천의 파이널 라운드는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경기 강원전 오랜만에 선발 명단에 복귀한 이주웅과 오재석은 경기 시작과 함께 양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였고 이후 제주, 포항, 전북전 모두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하였다.

올 시즌 조성환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최전방이었다. 무고사와 에르난데스의 부재를 다양한 선수들로 시험했지만, 그 중 최전방 공격수 김보섭의 활약이 가장 좋았다. 압권은 36라운드 제주전이었다. 최전방 김민석-김보섭-홍시우 조합을 내세운 인천은 제주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공략하며 결국 3-1 대승을 거뒀다.

제주전 홍시우와 함께 1골 1도움을 기록한 김민석은 이후 전북과의 리그 최종전에서도 헤더로 득점을 신고하며 인천의 새로운 신성으로 떠올랐다. 지난 시즌 리그 1경기 출전했던 김민석은 올 시즌 5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다음 시즌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2022시즌을 앞두고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오재석은 "감독님께서 우리의 목표에 대해 구체화해주셨다. 우리의 목표는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다. 우리 모두 꿈을 향해 달려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즌 시작 전, '인천이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한 축구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인천유나이티드는 목표를 위해 모두가 함께 뛰며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열정과 감동의 추구', '인천다운 축구'로 당당히 4위를 차지했다. 내년 또 다른 도전을 펼치는 인천유나이티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2023년, 아시아에 인천이라는 파검의 이름을 더욱 강렬하게 새기길 바란다. 인천은 강하다!



조성환 감독, 팬들 덕분에 이뤄낸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빠른 공수전환으로 더 많은 즐거움 드리겠다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2020년 8월 1일 리그 14R 광주FC전에서 1-3으로 패한 인천은 개막 14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다.

인천은 그 난국을 타개하고자, 조성환 감독을 선임한다.

조성환 감독이 인천에 부임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2020년 개막 첫 15경기에서 5무 8패라는 역대 최악의 부진을 겪던 인천은 파이널A에 진출하고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이 되었다.

가장 강등과 근접했던 시기에 인천의 지휘봉을 잡은 조성환 감독은 인천을 팀 역사상 가장 높은 무대로 인도했다. 2022년, 리그 4위와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사상 최고의 성과를 올린 인천의 조성환 감독을 UTD기자가 만나봤다.



팬 여러분과 인천의 모든 구성원 덕분에 이뤄낸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인천의 2022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인천은 2013년 이후, 9년 만에 파이널A 진출에 성공했으며, 승강제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순위인 4위로 시즌을 마쳤다. 게다가, 다음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티켓까지 획득하며 창단 사상 처음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뤄냈다.

조성환 감독은 "팬 여러분이 만족하셨을 만한 시즌을 치른 것 같아서 감독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이번 시즌 결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시간을 빌려서 선수들에게도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쳐서 인천의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하다"라고 2022시즌 소감을 전했다.

2022시즌 개막 전, 조성환 감독과 선수단은 시즌 목표로 파이널A를 넘어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야기했다. 무리한 목표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조성환 감독과 인천은 그 목표를 현실로 이루어 냈다. 조성환 감독은 "시즌 전에 목표를 AFC 챔피언스리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루하루, 1경기 1경기 잘 준비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시작부터 '우리는 시즌이 끝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못 한다. 1경기 1경기 최선을 다했다. 나 혼자 뿐만 아니라, 우리 팀 모든 구성원이 하루하루 노력한 결과다"라고 AFC 챔피언스리그라는 목표를 달성한 기쁨을 전했다.

인천의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천은 K리그 4위로 시즌을 마치며 리그에 걸려있던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획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리그 준우승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직행을 이미 확정된 전북현대가 FA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인천이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가져왔다.

인천의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걸린 전북과 FC서울의 FA컵 결승전은 인천의 모든 구성원이 주목한 경기였다. 조성환 감독도 예외는 아니었다.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욕심이 있기도 했고, 경기 결과 자체가 궁금하기도 해서 FA컵 결승 1차전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조용하게 보고 왔다. 1차전에서는 서울이 먼저 2골을 넣었지만, 전북이 2골을 따라갔다. 2차전은 분위기가 전북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게다가 전북 홈이었다. 우리에다"라고 말했다.



리그 4위,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낸 조성환 감독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2 K리그1 감독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아쉽게 17년 만에 울산현대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홍명보 감독에 밀려 실제 수상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성환 감독은 "상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모든 감독이 감독상을 받고 싶어할 것이다. 감독상은 본인의 철학을 경기장에서 나타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고 싶다. 상 그 자체보다는 감독상을 받을 정도의 내용과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위안 삼겠다"라고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무고사-에르난데스 공백, 팀으로 이겨냈다

올 시즌 인천은 초반부터 질주했다. 수원상성과의 개막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12년 만에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인천은 시즌 초반 한때 2위까지 올라가며 리그 선두권 경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인천이 전반기에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것은 주포 무고사의 활약이 컸다. 무고사는 전반기 18경기에서 14골을 몰아치며 인천을 상위권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인천의 흐름을 견인한 무고사가 여름에 J리그 비셀 고베로 이적하며 시즌 중반, 인천에게 에이스의 공백이라는 악재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 조성환 감독은 "올해 상반기에 무고사가 잘 해주었다. 무고사의 이적이 팀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면 팀이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였다. 나간 선수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발 빠른 대처와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무고사의 공백은 그를 대신해 인천으로 합류한 에르난데스가 성공적으로 메웠다. 에르난데스가 가세한 인천의 공격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다채로웠다. 에르난데스도 8경기에서 4골 4도움을 올리며 무고사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했다. 조성환 감독은 "전력강화실과 대표님,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닿아서 에르난데스를 영입해 무고사의 빈자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에르난데스는 무고사처럼 전통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가짜 공격수, 펄스 나인 같은 유형이다. 에르난데스와 함께 김보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시도했던 것이 주효했다. 에르난데스의 합류로 코치진과 선수들이 좋은 시너지를 냈다"라고 에르난데스 활약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 에르난데스마저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감하며 인천이 또 한 번 공격진에 큰 공백을 맞았다. 실제로 인천은 에르난데스가 부상을 당한 뒤,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정규리그 막판부터 파이널라운드 초반까지 5경기 무승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그래도 조성환 감독은 에르난데스의 부상 공백마저 효과적으로 메워내며 인상적인 시즌 마무리에 성공했다.

조성환 감독은 "에르난데스의 부상은 무고사가 나갔을 때와 똑같이 생각하고 대처했다. 전력에 없는 선수의 빈자리를 걱정하기보다는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선수들과 함께 어떻게 공격을 잘 만들어낼 것인지만을 생각하며 준비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에르난데스 부상에도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했다.



2022년 성과,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덕분에 가능했다

올해 인천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탄탄한 수비진과 중원, 역동적인 공격 등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인천이 사상 첫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냈다. 그중에는 조성환 감독의 지도력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로 인천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던 조성환 감독은 인천을 하나의 조직적인 팀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인천의 비상을 이끌었다.

그러나 조성환 감독은 올해의 성과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돌렸다. "결과를 감독 혼자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올해는 가장 일찍 개막해서 일찍 끝난 시즌이었다. 경기 일정도 상당히 빽빽했다. 선수단 컨디션 관리를 피지컬 코치, 의무팀, AT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잘 해주어서 타이트한 일정을 잘 소화했다. 또, 선수들의 자기 관리도 칭찬하고 싶다. 감독이 아무리 좋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발휘할 수 없다"라고 올 시즌 공을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주었다.

이어서 조성환 감독은 "시즌 막판에 연패가 있긴 했지만, 목표로 삼았던 연패 없는 시즌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이 올 시즌 성적에 발판이 되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4월, FA컵에서 광주에 1-6 대패를 당하는 와중에도 이기지는 못했지만, 연패가 없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다. 어려운 시기



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신구 조화였다고 생각한다. 고참 선수들이 좋은 분위기로 잘 끌고 가주었다. 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올 시즌 인천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환 감독의 이야기대로 올 시즌 인천은 신구 조화가 상당히 좋은 팀이었다. 특히, 어린 유망주들의 활약이 예년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83년생 김광석, 86년생 강민수, 김창수 등 베테랑 선수들이 여전히 좋은 활약을 한 가운데, 올해는 00년생 김성민, 01년생 홍시후, 민경현, 02년생 김민석 등 22세 이하 어린 선수들의 활약도 더해졌다. 조성환 감독도 U-22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조성환 감독은 "프로 선수로서 첫 번째 자질은 올바른 인성과 멘탈이다. 기술과 체력은 기본이다. 인천의 22세 이하 선수들은 멘탈이 상당히 좋다. 잘 준비하고,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들이다. 자기 관리도 좋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해서 이들의 활약이 좋았다. 어린 선수들이 선배 선수나 팀 문화를 보고 잘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이 선수들이 준비를 잘해서 출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줄 수 있었다"라고 인천의 유망주들을 칭찬했다.

올해 인천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포지션 변화였다. 측면 수비수였던 김동민이 센터백으로 중앙 미드필더였던 김도혁이 측면 공격수로 역할을 바꿔서 인상적인 활약을 했다. 조성환 감독은 "포지션 변화로 선수의 축구 인생이 바뀌는 것을 자주 봤다. 나도 그랬고, 다른 선수들의 사례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다. 포지션 변경은 선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김동민과 김도혁이 새로운 포지션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아마 잘 안 됐을 것이다. 그러나 두 선수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해주었다. 그래서 바뀐 포지션도 잘 소화했다. 김동민, 김도혁이 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소금 같은 역할을 한 선수들이다"라고 포지션 바꾼 김동민과 김도혁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인천의 상승세 배경에는 탄탄한 수비도 있었다. 인천은 올해 리그 38경기에서 42실점만을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 4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조성환 감독은 "올해 목표는 38실점 이하였다. 근접하게 달성했다. 이것은 수비수들만 잘해서 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모든 선수가 수비에 기여한 덕분이다. 공격수, 미드필더들도 수비를 잘 해주어서 수비수들의 힘이 배가 되었다. 수비진의 활약도 좋았다. 전방에서 수비를 잘해준다고 해도, 후방에서 밝혀주지 못했으면 좋은 수비를 구축할 수 없었다"라며 좋은 수비의 원동력은 조직적인 수비였다고 이야기했다.

인천이 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던 시즌이기도 했다. 조성환 감독은 "해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자면, 득점이다. 초반에는 무고사가 득점을 많이 해줘서 우리가 결과를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더 다양한 루트와 선수가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개인 플레이로 득점할 수도 있고, 팀 공격 전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도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더 발전시켜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득점을 올리고 싶다"라고 2022시즌의 아쉬운 점을 돌아봤다.



2023시즌 목표는 빠른 공수전환으로 올해보다 더 나은 시즌 보내는 것

2023년은 인천에게 남다른 시즌이다. 창단 20주년에, 사상 최초로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해이기 때문이다. 2023시즌에 앞서 조성환 감독에게 다음 시즌 목표를 물었다. 조성환 감독은 "올해보다 더 나은 시즌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팬들의 기대치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올 시즌보다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 행복을 드리고 싶다"라고 2023시즌 목표를 전했다.

2023년은 조성환 감독이 인천에서 보내는 네 번째 시즌이다. 자주 감독이 교체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인천은 조성환 감독의 연임으로 연속성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조성환 감독은 "인천에서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해서 뿌듯하고, 자긍심을 느낀다. 아무래도 연차가 쌓일수록 더 나은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감독의 숙명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겠다. 늘 해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1경기 1경기를 잘 치르다 보면, 5년 차, 6년 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에서 오래 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인천은 2023시즌에 더 험난한 도전에 나선다. 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해야 하는 강행군이 예정되어 있다. 2022년에 좋은 성적을 낸 만큼, 인천은 다른 팀들의 더욱 강한 견제도 마주해야 한다. 조성환 감독은 예년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2023년을 앞두고, 새로운 팀 콘셉트를 이야기했다. 조성환 감독은 "현대 축구의 흐름은 빠른 전환이다. K리그1 12개 팀 중 공수전환이 가장 빠른 팀을 만들고 싶다. 빠른 공수전환으로 많은 득점과 적은 실점을 해서 팀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고 2023년 인천의 팀 콘셉트를 공개했다.

인천은 2023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1월에 태국 전지훈련을 떠난다. 3년 만에 떠나는 해외 전지훈련이다. 조성환 감독은 "선수들이 오래 쉬었다. 다시 몸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국내 동계훈련은 매서운 추위로 선수들의 부상 우려가 컸다. 훈련 강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날씨가 따뜻한 태국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태국 전지훈련을 떠나는 소감을 전했다.



인천 역사상 첫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잘 준비해 조별리그 진출이 1차 과제

인천은 내년에 팀 역사상 처음으로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선다. 인천은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부터 참가한다. 인천은 홍콩 리그 2위 팀과 베트남 V리그 2위 하이퐁 FC의 승자와 단판 승부로 조별리그 진출을 가린다. 조성환 감독은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는 홈에서 하지만, 요즘 동남아 팀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플레이오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잘 준비해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 조별리그에 나가는 것이 1차 과제"라고 AFC 챔피언스리그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AFC 챔피언스리그는 지금까지 춘추제로 진행되었다. 2월에 개막해 11월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인천이 참가하는 다음 시즌부터 AFC 챔피언스리그의 대회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유럽 주요 리그처럼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나는 일정으로 대회 일정이 달라진다. 인천의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도 2월이 아닌 내년 8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인천은 AFC 챔피언스리그가 처음이지만, 조성환 감독은 AFC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많다.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재임 시절, 조성환 감독은 AFC 챔피언스리그에 두 번 참가하며 아시아 무대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AFC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풍부한 조성환 감독에게도 8월에 개막하는 AFC 챔피언스리그는 처음이다. 조성환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반에 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한다. 해보지 않은 시스템이라 낯설기는 하다. 그래도 새로운 대회 일정에서는 시즌 초반부터 8월까지 리그에 올인할 수 있다. 거기에 좋은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기세를 타고 플레이오프와 조별리그에 임할 수 있다. 추후제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달라진 AFC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022년, 조성환 감독은 홈경기 관중이 만 명이 넘을 시, 팬들에게 제주 원정 비행기 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실제로, 8월 27일 23R 서울전에서 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았고, 조성환 감독과 선수단은 9월 6일 제주 원정 경기에서 팬들에게 비행기 표를 지원했다. 다음 시즌에도 조성환 감독의 원정 지원 이벤트는 계속된다. 조성환 감독은 "이미 공약을 했다. 만약, 인천이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 조별리그에 진출한다면, AFC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 항공 티켓을 제공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비행기 표 지원 이벤트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감독은 인천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조성환 감독은 "올 시즌 성과의 중심에는 팬 분들의 응원이 있었다. 팬 분들의 응원이 없었으면,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올 시즌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뜨거운 응원을 보고 많은 힘이 되었다. 손 편지와 정성이 담긴 선물, 건강을 생각해주는 선물을 보내주신 팬 분들도 많이 계셨다. 그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내년에는 많은 즐거움과 감동,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시즌을 보내고 싶다"라고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